

생활을 'e롭게'...영광서 e-모빌리티 미래 비전 본다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9월 26~30일 개최

삶의 편의 극대화해주는 다양한 미래기술 한눈에
공군 축하 비행·드론 레이싱·과학축전 등 다채
관람객 시승체험 확대...학술·부대행사 업그레이드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 메카 영광군 이미지 제고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가 오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린다. 지난해 엑스포가 진행됐던 본 전시관.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e-모빌리티를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엑스포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영광군은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를 오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미래기술이 융합된 생활 속의 e-모빌리티

'e-모빌리티 중심도시 영광'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가 대중에게 다소 생소한 미래 이동수단인 e-모빌리티의 비전과 미래기술 중심도시 영광군의 이미지를 알리는 행사였다면 이번 엑스포는 '미래기술이 융합된 생활 속의 e-모빌리티'라는 주제로 e-모빌리티의 편리성을 알리고 기술의 진화를 홍보할 계획이다.

대중의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자리 잡아 삶의 편의를 극대화 해주는 e-모빌리티의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회 행사에서 관람객들의 호응이 좋았던 e-모빌리티 시승체험을 200대로 대폭 확대해 관람객만 하는 수동적인 엑스포가 아닌 방문객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보는 능동적인 엑스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연스럽게 대중의 e-모빌리티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부수적으로 관람객의 체험기회 확대를 통해 e-모빌리티 제품구매유구를 자극해 지난해 92억원의 현장판매 실적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제관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생활 속 e-모빌리티의 모습을 담아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제품·첨단기술 발표회와 PR쇼를 통해 각종 첨단기술과 신제품 홍보, e-모빌리티 미래생활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계획이다.

◆최고의 전시·업그레이드 된 학술·부대행사

1회 때보다 더욱 다채로워진 학술·부대행사도 준비했다.

전시·시승행사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포럼 등 e-모빌리티의 정책 방향과 산업 혁신 성장 전략을 연구하는 학술행사와 드론 레이싱, e-모빌리티 자작 경진대회, 미래인재 과학축전 등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학술행사로 e-모빌리티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EV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기업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e-모빌리티 국내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대한민국 e-모빌리티 정책토론회'도 개최된다.

행사의 의미를 더할 부대행사도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찾아온다.

공군 블랙이글스 'fly-by 축하 비행'이 개막식을 빛내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드론레이싱 대회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세계 대학생 e-모빌리티 자작 경진대회' 등 일차게 준비했다.

특히 '미래인재 과학축전' 고등학생 참여를 확대해 전남을 대표하는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이와 함께 VR, AR, MR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로봇전시와 공연을 확대하는 등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개최기간 보다 하루를 늘린만큼 참가객도 전년 8만7000여명을 넘어서 10만여명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엑스포는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메카로서의 영광군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참여기업의 전시·마케팅과 연구개발육성을 통한 e-모빌리티 산업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더욱 성공적인 엑스포가 개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엑스포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e-모빌리티 시승체험을 하고 있다.

영광군,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대상지 확정

3년간 240억 투입 조성



지난해 열린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는 인프라 확충에도 결실을 맺었다.

영광군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e-모빌리티 사업이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1차년도 국비예산 10억을 확보했다. 지식산업센터는 같은 건축에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 등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영광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조감도)는 2019년부터 3년간 240억원(국비 160억원)을 투입해 대마산업단지 인근 e-모빌리티 배후단지에 연면적 1만8000㎡(지상 4층, 50실) 규모로 짓는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지식산업센터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6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며 "인구와 경제, 산업 여건 등이 우리 군보다 우수한 지역과 경쟁에서 이루어낸 결과라 더욱 값진 쾌거"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 올해 전기이륜차 50대 민간 보급

영광군이 올해 전기자동차 90대에 이어 전기이륜차 5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영광군은 일반형(2륜) 11종, 기타형(3륜) 7종 등 총 18종의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조금은 차종과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일반형은 219만~266만원을, 기타형은 309만~3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가능 차종과 재원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법인, 단체여야 하며,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기존에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통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 법인과 대표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는 25일부터 4월1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차종판매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은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지원 신청을 할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